

지역 매아리

정읍시보건소,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교육... 11월까지

정읍시보건소가 지난 달부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 정읍시 생활개선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1월까지 이어지는 이번 교육은 여성 농업인을 농업 현장의 중간 교육자로 양성하여 진드기 매개로 발생하는 감염 질환에 대한 지역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수칙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4월부터 11월까지 야생진드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에 주로 발생한다. 따라서 이 시기 야외 활동 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농작업 시 발생 사례가 많아 농업인들의 각별한 경각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감염병 중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쯤쯤가무시증 예방을 위해 교육을 마련하고 있다"며 "교육을 통해 진드기 매개 질환의 주요 증상과 예방 및 관리 방법, 진드기에 물렸을 때 대처 방법 등을 알리는 한편 진드기 기피제와 토시 등 진드기 예방용 물품을 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개소

정읍시는 태평로 내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마련, 최근 개소식을 가졌다.

업무 공간과 회의실 등을 갖춘 현장지원센터가 문을 열게 됨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장지원센터는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 관련 의견과 정보를 나누는 소통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역 내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고 사업시행 주체 발굴에 나선다. 또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과 공동체의 역량강화에 나서는 물론 서포터즈와 코디네이터 등 지역 활동가 양성, 소식이 발간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시는 "현장지원센터가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현장 거점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수렴, 행정과 주민 간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중심 시가지정 사업에 선정됐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지역일자리 잡기 총력

고용율 71.5% · 취업자수 3만2500명...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 발표

부안군은 고용률 71.5% 취업자 수 3만 2500명을 목표로 하는 '2018년 부안군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를 지난 30일 발표했다.

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지자체가 추진할 일자리 목표 및 전략을 지역 주민들에게 제시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부안군은 정부부문으로 직접 일자리 창출 ·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7개 분야 212개 사업, 민간부문으로 제3부안농공단지내 기업유치 및 공장 신설 등을 유도할 계획이며 고용노동부 지역정보네트워크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부안군 2018년 일자리 대책 역점 전략으로는 청년 · 어르신 · 경력단절여성 ·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등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 지역 일자리지원센터 취업 연계 확대 및 강화, 기업유치를 위한 일자리 창출, 공원 · 하천 · 하수도 · 주민행복사업 등 지역발전사업 발주를 통해 4885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일

자리 전략과 계획 외에도 정부 일자리 정책과 지역 고용시장 흐름에 발 빠르게 대처해 고용창출과 직접 연계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이를 위해 관련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안군은 3월 일자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해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 제1회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에서도 우수 일자리정책 행정안전부장 관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도진 정읍시장 예비후보 "옥정호 수면 개발 반대 · 신 내장산 시대 열겠다"



정읍시민들의 식수원인 옥정호에 수상레저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것에 정읍 시민들의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주당계 정도진 예비후보는 "옥정호 수상레저단지 개발을 중단하라"고 주장하며 전북도와 정읍시, 임실군의 합의내용에 대해 지적했다.

정도진 정읍시장 예비후보는 "그동안 정읍은 옥정호 라는 걸출한 식수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물 걱정 없이 살아왔지만 전임 시장이 전북도와 임실군에 걸쳐 준 상생협약서로 인해 전북도와 임실군이 옥정호에 배를 띄우려는 개발계획을 하고 있다. 말 그대로 우리 정읍시민이 마시는 물에 발을 담그려는 발상이며 묵묵히 협약을 써준 김삼기 전임시장과 옥정호 개발 계획에 따른 개발비용 예산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 양 도의원

은 시민들께 사과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또 정도진 예비후보는 "옥정호 수면개발을 반대하면서 옥정호의 상류인 신내면 구절초 공원 일대에 개발행위를 한다면 이 또한 모순이기 때문에 물을 이용한 개발행위는 옥정호 인근지역을 배제하는 대신 내장산 수지 개발을 현실화하는 신(新)내장산 시대를 열겠다며 ▲내장호 주변에 호텔, 온천, 콘도, 컨벤션센터 유치 ▲내장저수지 둘레길 모노레일 설치 ▲내장저수지 조각분수 설치 ▲문화광장에서 연교까지 정읍천 경사면에 꽃잔디 정원 조성 등을 통한 사계절 대표 축제를 발굴 시행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는 "현재 정읍시는 전임시장의 낙마로 도지사가 임명한 부시장이 시장권한 대행은 도지사에게 현 상황을 대변하지 못하고 도지사의 눈치를 보는 부시장은 책임 있는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장권한대행은 도지사에게 현 상황에 대한 정읍시민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자연 친화적 생태 · 녹색도시 조성 앞장

정읍시, 제73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가져

정읍시는 제73회 식목일(4월 5일)을 앞두고 지난 30일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김용만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과 산림 분야 유관기관 · 단체 임직원 등 180여명은 부전동 임야(산232번지) 9917여㎡에 5년 생 편백나무 묘목 1500본을 심었다.

시는 "식목일을 앞두고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나무 심기를 통해 자연 친화적인 생태 · 녹색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시장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생활권 주변에 나무를 심고 가꾸어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고 상생하는 지구, 꿈과 희망이 있는 정읍으로 만



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읍 산림조합은 행사장 주변에서 감나무와 매실 자두 등 2000여본의 묘목과 꽃씨를 참석자에게 무료로 배부했다.

한편 시는 나무 심는 시기를 맞

아 봄에 총 100ha의 산림에 편백과 백합나무 등 20여만 본의 속성수와 경제수 그리고 경관 수종을 심어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 자원으로 가꾸어 나가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동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아산면, 공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위 · 수탁계약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체결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면소재지의 기능을 강화하고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마을주민의 삶의 질 향상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총 120억을 들여 아산면에는 희망센터 조성, 행복채움터 리모델링, 배수시설 개선, 가로경관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공음면에는 어울림센터 및 어울마당조성, 보행자 안전도로 조성, 작

은목욕탕 리모델링, 쉼터조성,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등 주민실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 및 주민의식 개선을 위한 지역영양강화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한편 창조작가를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성송면 산태마을, 신림면 임전마을의 사업도 한국농어촌공사와 위 ·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2019년까지 왕버들나무숲 주변정비, 샘지공원 조성, 마을우물터 복원, 용추폭포길 조성, 우물 및 쉼터정비, 용추 폭포길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 농식품 판로 개척 위한 '향토건강식품명품화사업' 협약식 개최

고창군이 지역 대표농산물인 복분자 등 배리류와 청정고창 지역의 풍부한 향토자원들을 이용하여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활로를 개척하고 잘사는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노력하고 있다.

군은 지난 30일 군청 상황실에서 관내 식품업체와 참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베리베리오식품 연구소 문규환 소장을 사업단장으로 하는 '향토건강식품 명품화사업' 협약

식을 개최했다.

이날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타오바오에 입점하여 지역 내 업체의 제품을 유통 · 판매하는 명원(주)과 각 지역의 특산물 판매에 주력하고 있는 다드림(주), 복분자의 기능성 검증을 위해 임상시험 연구를 진행하는 전북대병원,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소비자 맞춤형 기능성 제품을 연구 · 개발하는 (재)베리베리

오식품연구소가 협약을 맺었다.

'향토건강식품명품화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전라북도와 고창군에서 6년간 국비 15억을 포함해 총 30억을 지원해 (재)베리베리오식품연구소를 중심으로 복분자에 대한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이용 기능성 식품 개발과 산업화를 통해 지역 농산물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이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소방서, 내소사 입구 '등산목 안전지킴이' 운영

봄 행락철을 맞아 부안소방서(서장 강동일)가 4월부터 두 달 동안 부안진서면 내 소사 입구에서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부안소방서의 등산목 안전 지킴이는 산악사고 예방관리를 위해 매주 토 · 일요일과 공휴일에 구급대와 의용소방대원이 배치되어 내 소사를 찾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안전활동을 펼친다.

주요 활동내용은 ▲안전한 산행방법

안내 와 협업체 등 응급환자 처치 ▲주요 등산로 순찰활동을 한다.

강동일 부안소방서장은 "산행 전에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고, 고혈압 등 심혈관 질환자는 등산 중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무리한 산행을 자제해야 하며 민약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위도와 경도가 정확히 나오는 119앱을 미리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부안=이옥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품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결핍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호 | 750ml 1ea/12% |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호 | 375ml 5ea/13% | GIFT SET 6호 | 500ml 장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일반 | 375ml 2ea/13%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